

자본시장법 위반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 구속

장외주식 헐값 매입 후 허위정보 퍼뜨려 고가 매도 부당이익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 사무실 두고 수천억원대 투자금 조성 호남 기반 자회사 에어필립 국제운송사업 면허 취득 먹구름

장외주식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엄일석(50) 필립에셋 회장이 구속됐다. 이번 구속사건과는 관련 없지만, 엄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에어필립의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 면허취득도 난기류가 예상된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기리)는 지난 20일 엄 회장과 필립에셋 간부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피의자 3명 모두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회장 등은 무인기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립에셋은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장외주식 거래, 크라우드펀딩, 보험 등을 관리했으며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회장은 필립에셋과는 별도로 2016년 12월 헬기 운송 사업체 '블루에어' (Blue Air)를 인수한 뒤 2017년 8월 소형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체로 전환하기 위해 필립에셋 자본금 100%를 투자해 지분을 늘리고 광주-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필립을 설립하는 등 사세를 확대해 왔

다.

필립에셋 회장이자 에어필립 대표이사인 엄 회장이 구속되면서 에어필립의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 면허 취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소형항공사업을 펼치고 있는 에어필립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으며,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신규 항공사에 대한 면허 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1-2곳의 항공사에 면허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에어필립은 지난날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150억원 납입을 의결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를 5대로 늘리는 등 국제운송사업에 필요한 자격에 맞춰 출사표를 던졌지만, 모기업의 대표 구속이라는 암초를 만나게 됐다.

엄 회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호남에 기

반을 둔 에어필립이 공중분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에어필립은 현재 광주-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국내외 항공노선 취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내달에는 70여명도 신규 채용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엄 회장이 항공 관련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사건이 아닌데다, 형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결격 사유는 없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대표이사 구속됨에 따라 면허심사 과정에서 에어필립의 재무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에어필립 측은 "자본금을 기존액수인 150억원의 두배가 넘는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어 자본금 납입에는 문제가 없다"며 "현재 항공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장점을 내세워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영세상인 울린 '母子 사기단'

단골행세 하며 57회 걸쳐 1000만원 끌겨...목포경찰 검거

목포경찰은 21일 단골인 척 행동하며 영세상인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A(36)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어머니 B(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목포의 한 마트에서 업주 C(48)씨에게 20만원을 빌리고 갔지 않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전북 일대 편의점·마트·피씨방 등에서 57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트 업주에게 자신을 단골이나 동네주민이라고 말한 뒤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비가 없

다거나 장례식장 부의금이 갑자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작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상점 주인을 속이기 위해 어머니 B씨와 전화 통화를 시켜줬으며 B씨는 "마트에 자주 가는 A의 엄마다.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 오후 3시까지 갚아주겠다"고 변명을 도왔다.

또 피씨방 종업원에게 주인과 친한 사이라며 돈을 빌려거나 마트에서 고액의 물품을 사겠다고 한 뒤 다시 찾아와 소액을 빌리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응급실 음주 행패 50대 체포

광양경찰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씨를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8시경 광양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머리가 아프다"며 입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10여분간 의료진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한 A씨는 병원 측이 '술을 마신 사람은 입원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입대 앞둔 20대 음주 난동

광주서부경찰은 21일 술에 취해 영화관 현관문 등을 발로 차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재물손괴)로 김모(2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영화관 건물에 들어가 상영관 출입문, 매점 집기, 소방설비 등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입대를 이틀 앞두고 친구들과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혼자 영화관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하면 배회하는 버릇이 있는데 영화관에서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민노총 광주본부 총파업 21일 오후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제도 철폐, 노조 권리강화 등을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북부경찰, 추격 끝에 편의점 강도 붙잡은 업주 표창

편의점 강도를 추격해 붙잡은 30대가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성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50분께 흥기로 20대 여중업원을 위협해 현금 54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박모(60)씨를 100여m 쫓아가 붙잡았다.

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성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50분께 흥기로 20대 여중업원을 위협해 현금 54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박모(60)씨를 100여m 쫓아가 붙잡았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당시 종업원은 인근에 있던 성씨에게 전화로 연락했고 성씨는 곧바로 박씨를 추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특별한 반항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양우천 북부경찰서장은 "흥기를 든 강도 제압은 쉽지 않은 데 성씨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공동폭행' 적용

김성수 살인혐의 검찰 송치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공범 논란을 빚은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동생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은 21일 "김성수의 동생 김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8분께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순남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자리 정돈 문제로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수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집에서 흥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살해했다. 동생 김씨는 형이 신씨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씨의 허리를 잡아당겼

으며, 경찰은 동생이 유행력을 행사해 신씨를 공동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범행현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PC방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김성수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김성수의 동생이 신씨를 붙잡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경찰은 김성수의 동생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수는 신씨를 넘어트린 후 흥기를 휘둘렀으며 동생이 흥기를 휘두르는 형을 잡아당기거나 형과 신씨 사이에 끼어들어 형을 제지하는 CCTV 영상으로 볼 때 살인죄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내외부 전문가의 CCTV 정밀분석, 감식 및 부검결과, 법률 전문가들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성수의 동생이 신씨의 허리 부위를 붙잡는 일련의 행위가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 보다는 유행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동생 김씨를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성 집 따라 들어가려 소동 벌인 취객 '뒷모습이 아내 같아서...'

○...술에 취한 50대가 자신의 아내와 뒷모습이 비슷한(?) 한 여성의 집 앞까지 따라 들어가려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서행.

○...2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12층에 거주하는 A(56)씨는 지난 19일 밤 9시

55분께 같은 동 14층에 사는 B(여·59)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는 것.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집에 가던 중 B씨의 뒷모습이 꼭 아내 같아 따라간 것이 절대 남의 집에 침입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판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